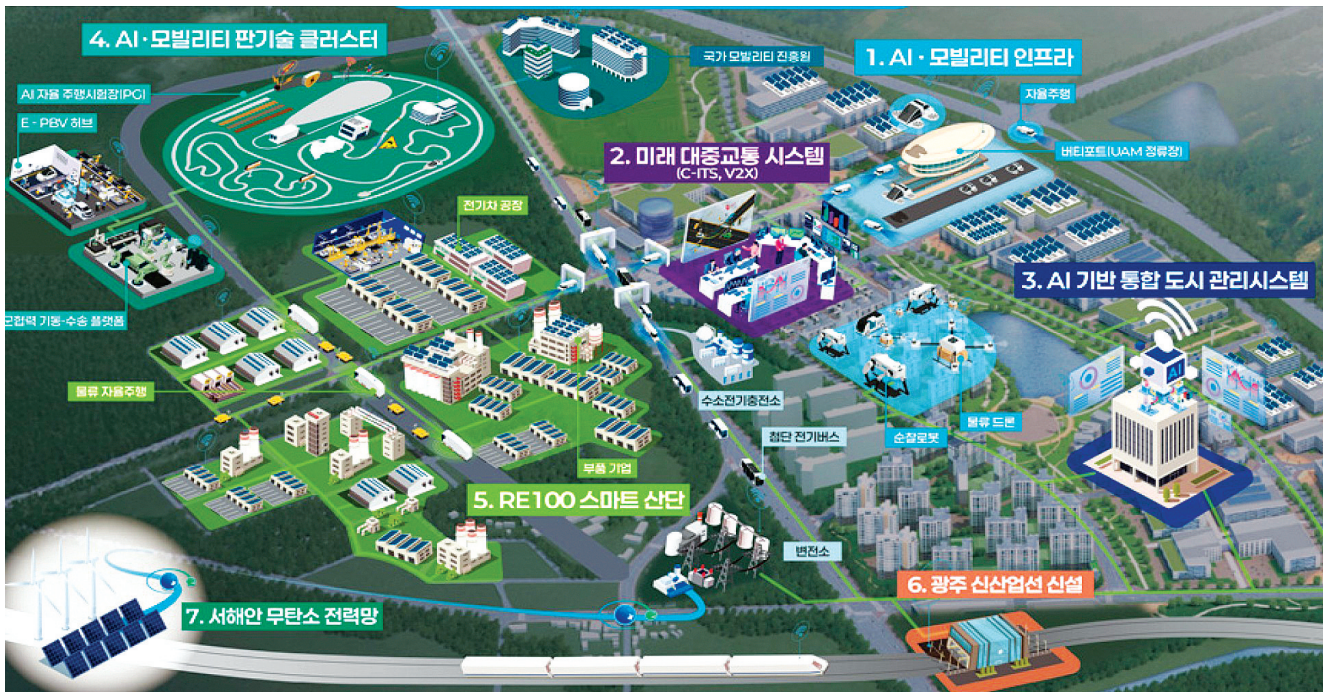


광주 인공지능·모빌리티... 전남 국립의대 설립 '최우선'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메가 샌드박스형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 조감도.

(광주시 제공)



여수국가산업단 전망대에서 바라본 여수산업단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광역시

광주시는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을 통한 먹거리 확보로 위기 극복을 모색하고 있다. 기회와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을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 첨단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에 집중이 필요하다. 제조업 기반이 약한 광주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 양 날개는 바로 인공지능(AI)과 미래 이동수단(Mobility) 산업 생태계 조성이다.

◇대한민국을 AI로 이끌 '광주' = 광주 AI인프라는 여느 지자체보다 앞서가고 있다.

광주의 꿈과 미래는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우뚝 서는 것이다.

세계적 수준의 국가AI데이터센터들이 이미 구축한 광주시는 미래의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 구축에 나섰다.

대한민국이 AI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광주AI에 빠르고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광주시도 이에 맞춰 'AI모델시티'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데이터 집적·학습·활용의 기반을 통해 AI기술의 선도를 이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AI 시장에서 혁신적인 발전주도를 위한 계획으로 '초거대 국가 AI컴퓨팅 인프라 구축', 'AI 데이터뱅크 구축 및 메가 샌드박스 지정', 'AX 실증밸리(AI 2단

'기회의 도시' 광주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 車·AI 접목 '메가 샌드박스형 모빌리티 신도시' 꿈꿔

계 사업) 조성', 'AI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양자·휴머노이드 테크산업 기반 구축'을 과제로 삼고 있다.

먼저 10조 규모의 글로벌 수준(10만장) GPU(그래픽 연산 장치) 확보 및 컴퓨팅서비스를 위한 초거대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에 AI기반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뱅크 구축 및 메가 샌드박스 지정(1조원 규모)과 조성된 AI인프라(국가 AI데이터센터)의 고도화와 기업의 유치·인재 양성을 위한 AX실증밸리 2단계 조성이 시급하다.

추가로 뿌리부터 튼튼한 인공지능 인재양성은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의 성공과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다.

세계적인 AI컴퓨팅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해 AI기업들이 광주로 몰려오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지역에서 육성된 AI인재들을 채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자동차도시 '광주' 미래 이동수단도 책임진다=광주는 국내 유일의 완성차 생산기지가 2개소(기아, 글로벌모터스)로 연 72만대 생산능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제2의 자동차 생산도시이다.

광주는 지역 제조업의 43%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AI산업을 접목해 '메가 샌드박스형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을 꿈꾸고 있다.

빛그린·미래차 국가산업단 일원에 AI·모빌리티 기술융합 실증 인프라를 구축한

스마트 미래도시를 조성해 대한민국에서 미래자동차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광주 빛그린산업단에 구축된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는 국내 최대 166종의 친환경자동차 부품 시험·인증 장비를 구축해 기업의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미래차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인근에 위치한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는 자동차의 충격안전성, 충돌안전성, 배터리 안전성을 시험하고 인증하는 국내 첫 친환경자동차 전용 공인인증기관으로 3개의 시험동과 26종의 장비를 갖추고 기업을 인증업무 지원한다.

광주시는 기존 인프라를 기반으로 획일적 노선·시간의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 으로 이루어지는 이동성 극대화를 강조하는 미래 이동수단 산업을 선두하겠다는 계획이다.

드론, 수직 이착륙 이동수단 등의 연구·개발과 부품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연구시설(R&D) 산업단지 구축, AI기반 스마트제조혁신 및 자율형 물류·교통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이 핵심이다.

'AI·모빌리티 융합' 메가 샌드박스' 시범 신도시 조성(1조8000억원), '광주신(新)산업선 일만철도 신설'(1조 9000억원), 'AI·모빌리티 판기술* 클러스터 조성'(1조 4000억원), '미래차 RE100 스마트 산단 조성'(2조 3000억원)의 사업 등이 그 중심에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라남도

전남도는 최근 75건의 대선과제를 발굴,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핵심과제 20건, 지역발전과제 35건, 제도개선 20건으로 총 196조 8460억원 규모다. 그만큼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변화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남도와 전남도민이 갈망하는 시급한 핵심현안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 주력산업 대전환이다.

◇국립의대 내년 개교 무산=최근 전남도는 전남 국립의대의 2026년도 개교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의정 갈등과 탄핵국면으로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정부의 '1도 1국립대' 의견을 받아들여 목포·순천대가 가까스로 통합에 합의하고 통합의대 추진에 나섰기 때문에 아쉬움은 더욱 큰 상황이다.

전남은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곳이다. 전남은 180만 인구가 있는데도, 전남보다 인구가 적은 전북, 충북, 강원에도 4개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 필요성과 당위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역 형평성만이 문제가 아니다. 전남은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비율이 높아 의료 수요가 높지만, 의료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도서지역이 많다. 전남의 노인비율은 26.1%로 전국 평균(19%)을 웃돌고 있다. 전남도내 2165개 섬 중 유인도 276개 가운데 의료시설이 없는 곳은 59.4%에 달한다. 응급의료취약지역 포함 전국 98곳 중 전남이 17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의료수요는 많지만 열악한 의료 인프라

전남도민 30년 숙원 국립의대 설립 2027년 개교를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메가 프로젝트로 극복해야

라고 인해 아픈 도민들은 고소열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해 광주 혹은 수도권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전남도는 그동안 다양한 방면에서 국립의대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당장 지난해,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 추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정부에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김영록 도지사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통합'까지 이끌어냈다. 이제 전남도의 목표는 2027년 개교다.

전남도는 6월 치러지는 조기대선을 전남 국립의대의 빠른 설립의 기회로 보고 있다. 당장 전남도는 최근 확정된 대선공약 건의과제 75건 중 핵심과제 20건 중 첫 머리에 목포·순천 통합 의대신설과 상급종합병원 건립을 꼽았다. 또 전남도와 목포대·순천대, 의료계 등으로 의대설립 공동준비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의료계를 설득할 계획이다.

◇주력산업 대전환 추진=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은 최근 겪어보지 못한 침체 상황에 내몰렸다. 전남 산업이 '심장'인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침체는 곧 전남 경제의 위기로 받아들여진다. 전남도내 최대 산업은 여수 석유화학산업은 300개에 가까운 관련 기업과 2만 2500여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과 중동의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누계 생산액과 수출액이 15%나 줄어든 상태다. 원정인 대기업들의 업황 악화로 하청 업체인 플랜트사업까지도 불황이 터어 한때 1만 5000명 수준이던 플랜

트노동자는 2000여명 수준으로 줄었다.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기존 범용품 중심의 수출 의존형 성장 전략이 한계 봉착했다. 현 추세라면 오는 2028년까지 글로벌 공급과잉이 심화돼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 석화학산업은 기초화학소재 위주의 화학산업으로 구성된 탓에 더욱 어려운 상태다. 철강산업도 사정이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전남 철강산업은 석유화학과 더불어 주력 산업으로 국내에서 전체 생산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종일관 압박하면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석유화학산업을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10개 사업 5858억원)하고 각국의 환경규제와 탄소배출 제한 정책으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는 데 따라 탄소중립형 산업단지로 조성(9개 사업 1조 4225억원)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수소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산업 등 신산업 유치를 통해 장치산업을 활성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 산단 조성 등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과 여수산업·도도 CCUS 클러스터 구축, 제2석유화학산업 지정, 여수·광양만권 청정수소 산업벨트 조성 등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세계로!
미래로!
Global No.1
한전KPS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전력설비 정비산업의
성장동력이 되어 온 한전KPS,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글로벌 리딩기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 한전KPS